

# 농어촌공사, 창립 117주년 ‘비전 데이’…혁신역량 결집

한국농어촌공사가 창립 117주년을 맞아 새로운 청사진인 ‘KRC Re:Action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를 위한 전사적 도약을 선언했다.

농어촌공사는 8일 나주 본사에서 김인중 사장 등 임직원과 함께 제117주년 창립 기념일을 기념하는 ‘KRC 비전 데이’를 개최했다.

행사는 1부 ‘미래세대 비전’과 2부 ‘KRC 변화 비전’ 등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청년 세대로 구성된 ‘청년이사회’가 미래세대의 시각에서 바라본 공사의 비전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2부에서는 김인중 사장이 직접 혁신 실행 전략인 ‘KRC Re:Action 프로젝트

성장·구조·신뢰 등 3대축 재도약 다짐

청년 주축 이사회 미래비전 발표 눈길

트’를 선언하며 전 임직원의 동참을 독려했다.

이날 공사는 혁신을 위한 ‘KRC Re:Action 프로젝트’의 3대 축으로 △성장동력 재충전 △경영구조 재설계 △고객신뢰 재회복을 제시했다.

공사는 성장동력 재충전을 위해 △농어업 식량안보 강화 △미래농업 육성 △농어촌 공간 혁신 △농어촌 에너지 전환 △수원별 물 환경 개선 등 본업을 혁신하고 신

성장 분야를 전략적으로 확장한다. 공사 업무의 지속 가능성을 다지고 미래 농어업, 농어촌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경영구조 재설계는 △인공지능(AI) 대 전환 △재무 건전성 개선 △재무위험 관리 강화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를 골자로 한다. 경영 체계와 조직 운영 구조 전반을 재정비하고,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방침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8일 나주 본사에서 김인중 사장 등 임직원과 함께 제117주년 창립기념일을 기념하는 ‘KRC 비전 데이’를 개최했다.

고객신뢰 재회복을 위해 △윤리·안전·지역사회 보편적 서비스 확대 △수자원 절약·확충 활동(Water Positive)을 추진한다. 윤리경영과 조직문화 혁신, 환경·사회

·자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인중 사장은 “공사는 지난 117년간 농어촌과 함께 성장해 온 저력 있는 기관”

이라며 “이번 ‘KRC 비전 데이’를 계기로 미래세대의 감각과 조직의 실행 역량을 결집해 변화와 혁신을 일상으로 만드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환현 기자 pose007@gwangnam.co.kr

## 금호타이어, 어린이 환경교육 교실숲 조성

멸종위기 식물 494그루 제공  
일회용품 재활용 화분 제작도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트리플래닛과 함께 초등생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중심의 교실숲을 조성했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서울세검초등학교 19개 학급을 대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파초일엽’과 나사(NASA)가 선정한 공기 정화 식물인 ‘아레키아자’ 등 총 494그루(대형식물 19본, 소형식물 475본)의 식물을 제공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식물들이 심어진 ‘스미 화분’은 공장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 자투리 원단과 재활용 페트병으로 제작됐다. 한달에 한번만 물을 주면 되는 친환경적인 측면과 편리성을 동시에 만족한다.

학생들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생물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서울세검초등학교 19개 학급을 대상으로 ‘파초일엽’과 ‘아레키아자’ 등 총 494그루의 식물을 제공했다.

양성 전반에 대한 480본 분량의 환경교육(7화차)을 수료했다.

금호타이어는 트리플래닛을 통해 식물 건강 상담 및 고사식물 교체 등 1년 동안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학교에 제공된 식물 수만금 양묘장에 나무를 식재했다.

강진구 금호타이어 경영지원팀장은 “교실숲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환경과 자

연에 대한 공감과 경험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연결 고리를 만들고 생명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아이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공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해나갔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기아 “초기 모델·브랜드 자료 찾아요”

창립 80주년 맞아 자산 발굴·수집 캠페인

기아는 창립 80주년을 맞아 브랜드 자산 발굴·수집 캠페인 ‘기아 트레저 헌트: 80년의 유산을 찾아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기아 트레저 헌트’는 브랜드의 정체성과 성장사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80년 역사와 관련된 각종 자산을 수집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기아 초기 모델의 차량·부품, 오래된 문서와 디자

인 자료 등 역사성과 희소성을 가진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공식 홈페이지(<http://www.kiatreasurehunt.com>)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기아는 내부 평가위원단의 검토·심사

를 거쳐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자산을 선정하고 기증 또는 대여 등 후속 절차에 따라 기아의 헤리티지 유산으로 보존할 계획이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기아와 인연이 있는 모든 국민 여러분과 브랜드 스토리를 써 내려가는 과정”이라며 “한국 산업사의 의미 있는 장을 함께 완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현대차, 캐스퍼와 함께하는 연말 이벤트

26일까지 소원 트리·굿즈 공모전 사전예약 경품행사 등

현대자동차는 아이코닉한 디자인과 다양한 안전 편의 사양을 갖춘 대표 엔트리 SUV 캐스퍼와 함께하는 다채로운 연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현대차는 26일까지 Hello 2026 소원 트리 이벤트, 미니게임 ‘산타 디보와 함께 선물을 배달해주세요’ 이벤트, 제1회 캐스퍼 굿즈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공개 및 사전예약 이벤트, 캐스퍼 with 조구만 신상품 출시 및 기념 이벤트, 홀리데이 콘셉

트 조구만 월페이퍼 & 카가오톡 테마 배포 등 총 5개 이벤트를 진행한다.

Hello 2026 소원 트리 이벤트는 캐스퍼 홈페이지에 새해 소원을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현대차와 조구만의 신년 컬러버레이션 캘린더를 증정하는 행사이다.

소원 트리는 고객이 작성한 새해 소원이 일정 수량 모일 때마다 미니 전구가 1개씩 점등되는 형식으로 1000개가 모이면 미니 전구가 점등되고 트리 최상단 디

지털페이스 별이 켜지며 소원 트리가 완성된다.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캐스퍼 with 조구만 캘린더를 증정할 예정이다.

‘산타 디보와 함께 선물을 배달해주세요’는 산타 디보가 캐스퍼 일렉트릭의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인 315km를 돌려 친구들에게 선물을 배달하는 콘셉트의 미니 게임에 참가해 미션 지점을 통과할 때마다 경품에 자동 응모되는 이벤트이다.

제1회 캐스퍼 굿즈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공개 및 사전예약 이벤트는 캐스퍼 굿즈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한 7개 작품을 소개하고 상품화가 이뤄진 대상 수상작 ‘디보 시트백 수납함’의 사전 예약을 진행하는 이벤트이다. 정현아 기자 aura@

Spain Spirit

스페인 스피릿

GOMA GRAZE

스페인 포도주류주 고포 그라제